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304호 TEL : (051) 241-4011 E-mail : kiabb@hanmail.net Homepage : http://www.kiabb.org



Contents



- 01 • COVER
- 02 • 기획 :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제안하다
- 04 • 2024 제40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전
- 05 • 2024 제40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 작품공모전
- 06 •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1 특강
[일본 신인 건축가 히타토모히로 초청 특강]
•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2 세미나
[건축가 김용남의 태어나는 건축]
- 07 •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3 세미나
[도시건축통합계획 : 건축으로 도시하기]
•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4 좌담회
[부산 건축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담론]
- 08 • 2024 제16회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 09 • 2024 부산건축도시사진전
- 10 • 해외건축탐방 _ 도쿄
- 11 • 국내건축탐방 _ 추계
- 12 • 2024년 신입회원 간담회
• 2024년 신입회원과 임원 워크숍
- 13 • 2024 갈매랑 축제와 함께한 부산건축가회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
• 신입회원 및 젊은건축가를 위한 멘토링 도입
- 14 • 2024 회원작품 탐방
- 15 • 2024 부산국제건축 디자인워크숍
• 제18회 부산건축상
- 16 • 인사말

기획 :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제안하다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해 우리 부산건축가회에서는 2023년의 전문가포럼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획위원회에서 부산건축사신문에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제안하다라는 제목으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하였고 그에 앞서 서울시건축전시관 탐방과 각국의 해외사례와 여러 연구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_부산건축가회 기획위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난해에 있었던 부산건축도시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서울시건축전시관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매치커의 전평재대표와 설계자인 터미널7아키텍츠의 조경찬대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설계자 유케이에스티 건축사사무소 김유경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곧이어 부산의 여러 단체장들의 토론에 의해 부산의 도시건축문화를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를 위한 후속적인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토론이 마무리 되어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우리 부산건축가회에서는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얻기 위해 2024년에는 부산건축사신문에 2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하게 되었다.

비록 2회 뿐인 짧은 글이지만 몇 개월에 걸쳐 서울시건축전시관의 탐방과 해외사례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의 조사 및 위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 연구하면서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위원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도시의 도시건축전시관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도시를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유,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문화적 다리역할과 관광명소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영국 건축협회와 미국현대미술관은 건축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네덜란드건축원과 캐나다건축센터는 물리적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중국의 선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건축비엔날레로 '도시상호작용'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도시의 변화를 다루고 건축가, 예술과 영화인, 작가들이 참여해 도시 공간과 기술이 건축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와 문화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대중들에게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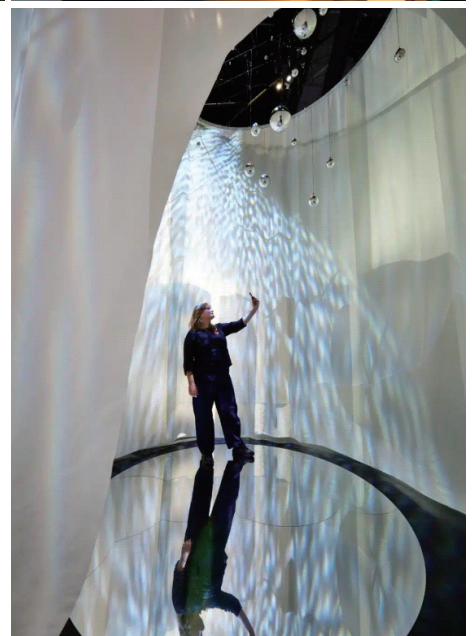


네덜란드 (출처 - <https://www.mvrdv.com>)






네덜란드 건축전시관 온라인전시프로그램 (출처 - <https://nieuweinstituut.nl>)

덴마크 건축센터 _ 건축전시 프로그램 (출처 - <https://www.visitcopenhagen.com>)



Group Tours and study trips

<p>Group Tour: Carlsberg City District: where history and future meet</p> 	<p>Group Tour: Copenhagen: World Capital of Architecture</p> 	<p>Group Tour: Expanding the City - Copenhagen's New Architecture</p> 
--	---	--

독일의 베를린건축센터는 건축관련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축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시카고 건축센터에서는 전문해설사가 동반하여 도시의 역사와 건축적 발전을 소개하는 투어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건축사신문 10월호에서는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위치를 제안해 보기도 하였다. 이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위치적 상징성'과 '주변과의 연계성', '접근성'을 기준으로 각국의 사례와 부산의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위치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로서 첫 번째로 북항재개발 내 부지를 제안하였다. 1896년 개항 이래 대한민국 최대 무역항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다가 글로벌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복합친수공간 조성, 국제해양관광거점마련, 원도심연결 등 굵직한 목표실현을 위해 사업지 42%에 달하는 면적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릴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한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면 해운대지역과 용두산 자갈치역 일대를 제안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누리마루 등 상업중심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고 자갈치역 일대 또한 보수동 책방골목,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광복로 등 부산역사와 생활을 품고 있는 원도심의 매력이 녹아있는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어 부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고려하면 센텀시티를 꼽을 수 있겠다. 도시철도나 부산급행철도 등 주요교통 인프라가 센텀시티를 관통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고 부산시내나 부산근교 도시에서의 접근 뿐 아니라 가덕신공항과의 연결도 유리해 해외 관광객의 접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당부해 본다. 각 기관과 각 대학 역시 워크숍을 비롯한 학생들의 과제 주제로 채택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오면 한다. 교육, 문화, 경제, 도시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산건축도시전시관의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덴마크 건축센터 _ 건축투어프로그램
(출처 - <https://www.visitcopenhagen.com>)

2024 제40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전

'이벤트를 통한 생성의 장소'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제40회 부산국제 건축대전 일반국제공모가 9월 27일 3차 심사를 끝으로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 일반은 수준 높은 작업을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주제 의식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4 제40회 부산국제건축대전 활동사진, 포스터

이번 주제는 '장소의 감각을 그대로 건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본 공모전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의 장소를 이해하고 실행시키는 건축의 감각은 필연적으로 그 장소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니즈들이 다양한 접촉을 통해 장소성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다. 올해 주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잠재성을 현실화시키는 것, 보편성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각자의 작품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심사에서는 참가자와 심사자들이 이를 함께 사유하는 지적 표현의 축제가 되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공모전인 만큼, 이번 공모전 또한 한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올해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작품들이 참여하여 독특한 지역 특유의 장소성이 반영된 작품들도 접수되었다. 특히, 404작품이라는 많은 수의 등록과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어 대한민국 학생

공모전에서 부산국제 건축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총 303개의 작품이 제출된 이번 공모전은 3회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산예총회관에서 한-태-일 심사위원들의 공개 심사가 진행되는데, 3차 심사대상자들의 열띤 경쟁과 토론, 관람객들의 참여 속에 최종 심사가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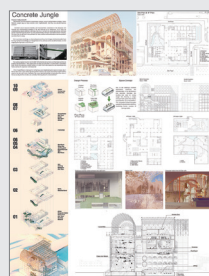
최종 대상작은 부경대학교의 Dickxon Fernando(인도네시아)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오사카공업대 Miyamoto(일본)와 출라롱콘대 Chananan Tangwinit(태국), 그리고 출라롱콘대 Tanaphun Thongsri(태국)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특선 5작품, 장려 11작품, 그리고 입선작품 등 총 102작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작은 주제에 대한 접근과 개념의 전개 등에서 탁월한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임영환 심사위원장은 "프로젝트의 대상, 디자인 접근 방법, 설계 과정의 논리성, 하물며 프리젠테이션 방식까지 나라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심사의 주안점은 첫째, 학생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완성도보다는 제안의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보았으며, 둘째, 기성 건축의 답습을 지양하면서 건축적인 새로운 시도를 눈여겨 보았으며, 셋째,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메시지의 여부를 보았다. 2006년부터 시작된 건축학인증 시스템이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획일성은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칫 정량화하고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만의 정체성 발현임을 모든 건축인이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 건축학인증을 통해 견고해지고 탄탄해진 우리의 건축교육을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가며 새롭게 도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평을 남겼다.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부산국제 건축대전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중, 일 중심의 행사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로, 또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건축인들의 사고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부산국제 건축대전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건축공모전으로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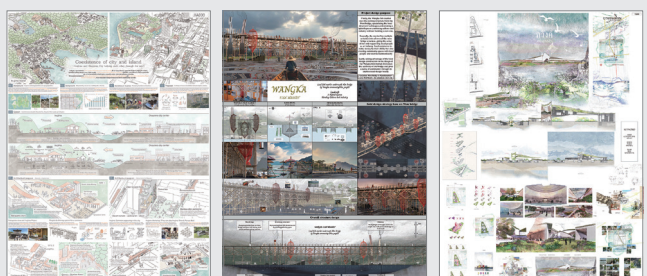
일반국제
공모부문
수상작

(대상)



일반국제
공모부문
수상작

(우수상)



2024 제40회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건축물부문 작품공모전

2024 부산건축가협회 완공부문 작품은 수상작은 'BEST AWARD 6'로 결정되었다. 올해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일반건축 부문 금상과 공공건축 부문 금상, 주거건축 부문 금상, 그리고 BEST AWARD 3로 나누어 총 6작품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건축계획 부분뿐만 아니라, 훌륭한 건축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축시공 장인상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했다.

완공건축물부문 수상작 중 일반건축금상은 동명대학교 이길임의 '복합문화 공간 언энд'가, 공공건축금상은 (주)아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김안경의 '북부소방서'가, 주거건축금상에는 (주)한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봉두의 '더 파크 이기대'가 선정되었으며 BEST AWARD 3 작품은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신주영의 호텔 애프터챗터, 건축사사무소 토탈 강대화, 강유진의 '작은 백일마을 주택'과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허동윤의 부산SW마이스터고 기숙사증축 및 교사 리모델링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산건축시공 장인상으로는 푸른담벼락 종합건설(주) 장성록이 선정되었는데, 푸른담벼락사옥, 루프트 사옥 등 다수의 우수한 건축물을 시공한 공로로 수상이 결정되었다.

작품 안내

일반건축 금상으로, 동명대학교 이길임의 '복합문화공간 언энд'는 김해시 대청계곡의 초입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로, 면과 선의 기하학적 추상의 구성과 자연과의 접면의 해결 방식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계획이다. 주변 산세와 자연과의 조화 및 외기와 접하는 전이공간의 계획이며, 내외부의 관통과 전개와 자연과의 접합의 개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점이 특히 우수하다.

공공건축 금상으로, (주)아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김안경의 '북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생명의 등대'로서, 눈이 띠는 양측의 상징적인 수직매스 사이로 자연의 숲을 오르는 개념으로 당선되었고, 낙동강에 면하여 전경을 끌어들이고 대지에 순응하고 있다. 소방서로서의 상징성과 기능 및 디테일이 충실하게 조화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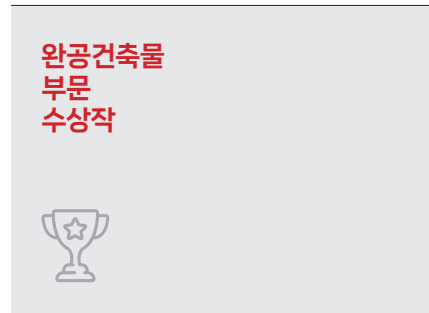
주거건축 금상으로, (주)한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봉두의 '더 파크 이기대'는 이기대 초입에 위치하는데, 천편일률적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군이 위치하는 콘텍스트에서 상징적인 매스와 색채를 보여주며 이기대의 초입의 정체성을 선도하며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다. 두 동의 매스와 사이길을 연결하는 브리지는 가로에 면한 상업 가로를 새롭게 만들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복합화되어 있다.

BEST AWARD 3 작품 중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신주영의 호텔 애프터챗터 프로젝트는, 기존의 폐업 호텔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광안리 후면 위치에 적합한 숙박공간의 조합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리서치하여 도심속의 오아시스인 루프트 수영장 및 웰컴 명상 공간 및 1층 주차장 공간의 카페 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심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면서 감각적인 호텔 리모델링의 사례를 제시했다.

건축사사무소 토탈의 강대화, 강유진의 '작은 백일마을 주택'은 자연을 품으면서 동향으로 펼쳐진 배치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외부로 펼쳐진 포디움과

구조물은 외부와 내부의 접면으로 내부의 활동과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색 공간을 잘 구현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매스구성의 조합과 각 재료와 표현 및 기능이 다채롭고, 일층으로부터 상부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성공적으로 각 기능과 연계되고 있다.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허동윤의 부산SW마이스터고 기숙사증축 및 교사 리모델링프로젝트는 기존 교사동을 일부 철거 및 증축을 리모델링하면서 각 영역에 커뮤니티의 공간을 삽입함으로써 학습과 학생활동에 있어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1 특강 [일본 신인 건축가 하타토모히로 초청 특강]

부산건축가회와 일본건축가협회 기타큐슈지부 (JIA) 및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와 부산학생건축 페스티벌이 공동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한 2023년 일본 신인건축가상 수상자 '하타토모히로'의 특강이 2024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2층 전시홀에서 개최되었다. 그의대표적 작품에 대한 해설과 건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부산건축학과 학생들의 교류의 장인 '부산학생건축 페스티벌 BASF' 행사의 일환으로 2023년 일본 신인 건축가상을 수상한 건축가 '하타토모히로'의 특강이 2024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청 2층 전시홀에서 개최되었다.

그는 2011년 관서지역 신인건축가상을 시작으로 교토 건축제, 일본건축가협회 디자인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현재 일본의 떠오르는 건축가로 '건축가 하타토모히로의건축세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오사카 바라히케 공원의 거점시설, 교토 시모가모의 단독주택, 효고현의아치주택 등 대표작들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본인만의 다양한 설계프로세스와 건설과정을 소개하면서 건축과 주변의 자연경관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방법론과 건축관에 대해 설명하여 특강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 행사에는 부산건축가회 회장 및 회원을 비롯하여 부산건축사협회장,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타 지역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의 독특한 건축관과 이를 형태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건축가 '하타 토모히로'는 다양한 실험과 사색의 결과로 인해 발현되는 감각에서 나오는 우연적 과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독특한 작업방식과 건축에 대한 철학에 대해 참석자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2 세미나 [건축가 김용남의 태어나는 건축]

2024년 5월 9일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세미나실에서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의 첫번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의 건축가를 수상한 건축가 '김용남'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의 건축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독특한 건축관과 현재 부산 건축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였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이봉두 회장)는 지난 5월 9일 (주)삼현도시건축사무소에서 '회원작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 2024 올해의 건축가 수상자 '김용남 건축가'가 그간 자신이 해 왔던 작업과 그의 건축관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 대주제는 '건축가 부산건축을 말한다'로 그 첫 번째 자리로 '건축가 김용남의 태어나는 건축' 주제로 부산건축가회 임원과 회원 및 부산대학생들이 참석했다.

김용남 건축가는 현재 한국과 부산의 건축이 점점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건축가의 역할이 무엇이며, 자신은 그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태어나는 건축'이라는 건축관을 바탕으로 지금

까지 어떤 작업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태어나는 건축'이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 설계해 온 라발스호텔, 메종드테라스, 디온플레이스양산, 센텀뷰라움, 사직자이언츠파크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건축가 김용남'은 해외건축과 부산건축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으며, 부산의 건축발전을 위해서는 건축계와 건축가들의 역할과 현실 인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건축가회 임원과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건축가회 이봉두 회장은 부산 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용남 건축가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비록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 지어지는 건물이라도 건축물의 사업적인 이해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까지 고려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내는 일이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3 세미나 **[도시건축통합계획 : 건축으로 도시하기]**

2024년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개최하는 '건축가부산건축을 말하다'의 두 번째 세미나 '도시건축통합계획 : 건축으로 도시하기'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세미나가 개별 건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는 영역을 확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건축과 도시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축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 연구 및 법제도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 부산 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도시건축통합계획 : 건축으로 도시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 및 법제도위원회 차윤석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한영숙 대표가 발표를 맡았고,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원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도시와 건축의 업무영역 통합과 확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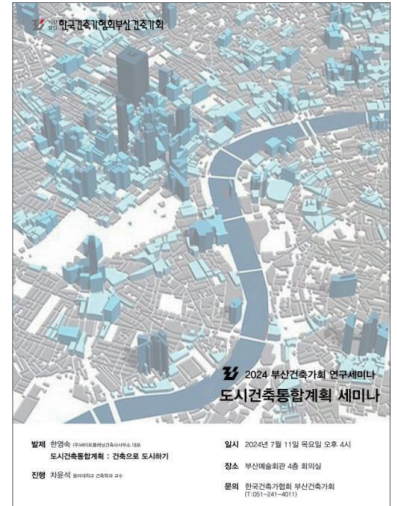
이날 한영숙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 중 도시와 건축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과업의 성격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으로 인해 단지 도시나 건축, 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건축과 도시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의 복합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과업의 세분화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친 통합 계획 노력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부산 또한 이에 발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봉두 회장은 “앞으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건축가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두진 부회장은 “통합계획과 업무영역의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에 대한 건축가들의 대비와 적응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장래 통합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 부산건축가회 기획4 좌담회 **[부산 건축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담론]**

2024년 11월 19일 부산예술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부산건축가회의 가치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20명 내외의 회원이 함께한 '부산 건축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담론'으로 세부주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총괄건축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최근 부산건축계의 화두들이 자연스럽게 주제가 된 자리였다.

먼저 부산건축의 가치를 통합하고 지켜나가고 주장해나갈 총괄건축가의 위촉을 재요청하고 총괄건축가가 위촉될 경우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의미로운 결실이 있도록 부산건축가회는 적극 지원하자는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향후 계획이 있다면 금회 부족했던 사항을 면밀히 살펴 세밀한 준비와 내·외부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부산의 건축가들도 '세계적인'이라는 '자격' 안에 동등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제한 없는 국제공모 방식 등과 나아가 공모시 지역 지분을 강제하는 등 부산건축가들의 역할 강화 방안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또한 선정되었을 시 '선정이유'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특별건축구역 대상의 적합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더불어 향후에도 부산건축가회에서 좌담회 등, 부산의 건축현안에 대한 토론과 상호이해를 위한 '가치공유의 장'의 필요성과 언론과 유관단체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다.



2024 제16회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주관하는 제16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이 2024년 5월 12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및 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소년상상마당은 '청소년의 참신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공간과 형태로 표현하면 건축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왔다.

유휴공간은 유희(遊休)와 공간(空間)의 합성어로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공간을 뜻한다. 도심 속 거리를 거닐 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혹은 갈 수 없는 비어 있는 곳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 고가도로의 하부공간 등의 빈 공간이나 기존의 용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어 빈 공간들도 있다.

제16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은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찾아서 생각해 보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 방안" 프로젝트로 개최되었다. 지난 해 "Saving Earth_생존 프로젝트"(2023년)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해에도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올 해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13개 고교의 20명이 신청하여 16명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부산의 여러 대학교의 건축학과에서 지원한 멘토들과 부산건축가회의 청소년건축 상상마당 운영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유휴공간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건축적 사고력, 건축을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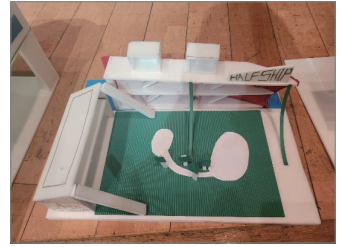
최근 들어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해 부쩍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유휴공간은 대부분 그리 크지 않은 면적에 도심 속에 퍼져 있기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 그 공간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참여 학생들이 제시한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 방안'은 재미있는 건축적 상상력으로 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참신한 스토리를 스케치하고 모형으로 표현하여 저마다 개성 있는 작품을 뽐내 부산예술회관을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2023년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부산건축가회 최세벌(건축사사무소 1458)건축가의 특강을 통해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참여 학생들에게 건축적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9시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의 심사는 부산건축가회 허진우 위원장, 정동원 위원, 박은정 위원, 최세벌 건축가가 맡았으며 열린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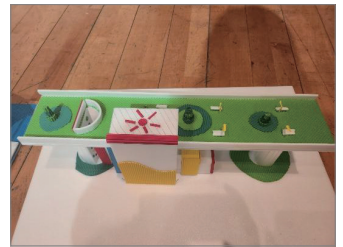
대상 박예준 [작품명 : HALF SHIP]

페션백과 선박수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통해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곳곳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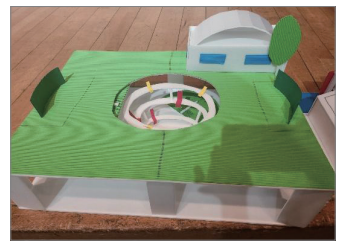
최우수상 백정은 [작품명 : 값진 해]

철거되는 고가도로의 상하부를 공원화 산책로,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통해 도시에서 기피되는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든 점이 돋보였다.



최우수상 김지민 [작품명 : 스킨 광장]

학교 운동장의 낮은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주민지역시설과의 복합적인 공간 계획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풀어진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에는 박예준(구덕고), 최우수상(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은 백정은(경혜여고), 김지민(양정고), 우수상은((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2명),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장상(2명), 부산건축사회회장상(1명), 부산울산경남건축학회회장상(1명)) 여윤솔(부산진여고), 강은채(테레사여고), 임성택(동천고), 황정원(진해여고), 손민경(만덕고), 이성우(양정고) 학생이 선정되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작품을 선보인 박예준 학생(대상) 뿐 아니라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건축적 꿈과 끼를 보여주는 건축가로서의 기대가 되는 학생들로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부산건축가회 이봉두 회장은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행사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청소년 건축 상상마당이 부산의 건축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생각과 작업을 선보일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발전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주 제: 찰나의 도시

장 소: 영도 원지

행사내용: 심사 - 1차, 2차 심사: 2024년 9월 11일 (부산예술회관 부산건축가회 사무국)
 공모기간 - 2024. 8. 1.(목) ~ 9. 8.(일) (온라인 접수)
 전시기간 - 2024 10. 8.(화) ~ 10. 11.(금) 부산예술제 기간 (영도원지)

부산건축가회(회장 이봉두)가 주관한 제62회 부산예술제 제25회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이 10월 8일(화)부터 10월 11일(금)까지 영도 원지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찰나의 도시'를 주제로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했으며 공모에 앞서 아래와 같은 발제문을 전했다.

「사진은 순간의 예술이다.

카메라가 19세기에 발명되었고 그동안 많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오늘날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광학기계인 카메라를 통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찰나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지시킴으로서 순간을 예술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도시는 지속적인 시간의 산물이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도시를 찰나의 예술인 사진에 담아 우리가 사는 도시의 쉽게 보이지 않는 속살을 들추어내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축의 순간 모습을 진솔하게 추적해 보는 것이 '2024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의 진정한 의미이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부산건축도시 사진전은 25회째 개최되고 있다. 건축도시사진전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나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공모전으로 부산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의 조명한 심사위원장은 “올해의 출품작은 소재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다루는 실력에서도 상당히 폭넓은 범위를 가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선정기준이 내용 위주입니다만 동점으로 선택의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은 출품작을 선정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우리 삶의 무대인 건축과 건축문화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일상에서 시선을 당기는 장면은 틈틈이 기록해서 다음에도 좋은 사진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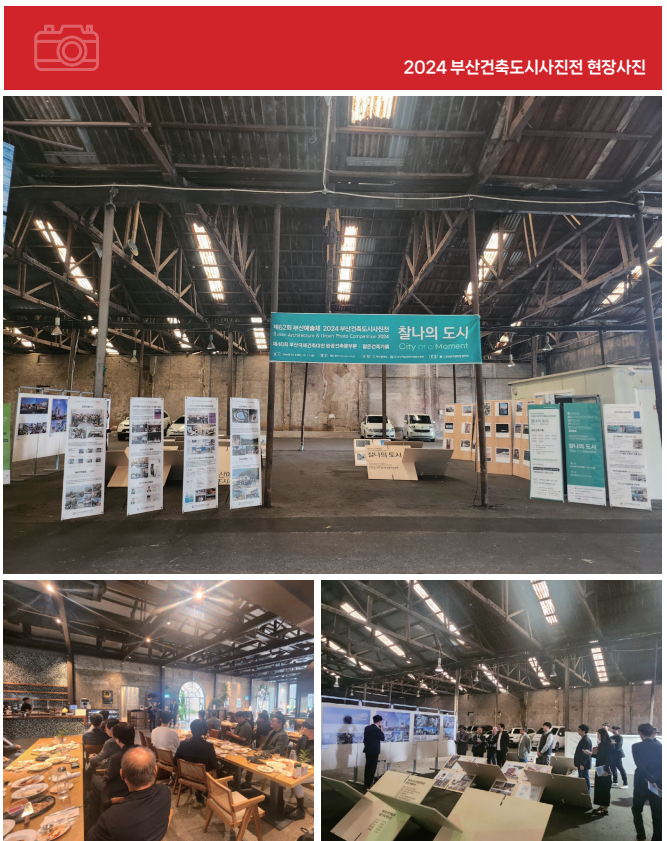
1등 - Epitaph (박규환)



2등 - 하얀 그림자가 만드는 건축 (김지완)



2등 - 안개 속 (김기호)



해외건축탐방 _ 도쿄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춘계탐방을 겸해서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중심이자 수도인 도쿄를 방문하여 미술관 위주의 공공건축물과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마키후미히코(1993년), 안도다다오(1995년), 세지마가즈요(2010년) 등 건축물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와 숨은 매력을 느끼고 돌아왔다.

7월의 폭염 속에 주요 거리를 오토이 두 발로 걸으며, 38명의 대규모 인원이 하나되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고, 45인승 버스에 38명이 서로 양보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는 탐방이었다.

이번 행사는 이봉두 부산건축가회 회장, 김두진 수석부회장, 손순희 전임회장 외 회원 및 회원가족, 부산시 건축관련 공무원, 부산시건축사회 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스미다호쿠사이미술관 단체사진

아자부다이힐스



지옥의문

국립서양미술관 단체사진

🕒 **일정** : 2024년 7월 3일(수) ~ 6일(토)

👤 **참여인원** : 38명

📍 **장소** : 일본 도쿄

• 제1일차

스미다호쿠사이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동경국제어린이도서관

건축탐방의 첫 목적지는 세지마가즈요(Sejima Kazuyo)가 설계한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The Sumida Hokusai Museum)은 우키요에 대표작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의 작품 전시관이다.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하여 미술관을 매개로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 제2일차

미드타운(산토리미술관)
21-21DESIGN SIGHT
국립신미술관
아자부다이힐스
긴자 견학

2일차 가장 관심 있었던 곳은 2023년 11월 24일 개장한 아자부다이 힐스(Azabudai Hills)로 저층부동은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가 디자인 하였고, 고층부는 PCPA(펠리 클라크 앤드 파트너스) 전체는 모리 빌딩 컴퍼니에서 설계하였다.

'Green & Wellness'라는 새로운 풍요로움을 컨셉으로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사람의 흐름이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생각해 거리의 중심에 광장을 설치하여 심리스한 랜드스케이프를 계획 후 3동의 초고층 타워를 배치했다. 물과 녹색이 연결되는 랜드스케이프를 정비하여 자연이 넘치는 심터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 제3일차

다이칸야마 티사이트
(다이칸야마 포레스트, 도쿄음악대학,
힐사이드테라스, 츠타야서점)
THE TOKYO TOILET
오모테산도 견학

3일차의 새로운 발견은 다이칸야마지역 이었다. 마키후미히코(Maki Fumihiko)가 1967년부터 1992년까지 설계하여 단계적으로 건설된 다이칸야마(Daikanyama) 힐사이드 테라스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사고방식의 25년에 걸친 변용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힐사이드테라스 주변으로 도쿄음악대학(Tokyo College of Music)과 츠타야서점(Tsutaya Books), 포레스트 다이칸야마(Forest Daikanyama)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 제4일차

요코하마랜드마크타워
요코하마오산바시국제여객선터미널
아카렌카 창고

마지막날은. 요코하마의 오산바시여객터미널(Osanbashi Yokohama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은 영국의 건축가 그룹 FOA(Foreign Office Architects)가 설계했고 2002년에 완공되었다.

설계 방향은 첫째,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념비적 건물 이미지를 배제하고, 낮고 수평선에 조화되는, 바다와 어울리는 건물을 계획했다. 둘째, 국제여객터미널이라는 도시의 패브릭에서 고립되어 접근이 제한적인 건물 타입을 지양하여, 크루즈를 타러가지 않는 일반시민도 누구나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개념을 도입했다. (farshidmoussavi.com)고 하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설계자의 의도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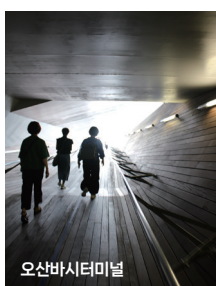
다이칸야마 티사이트



도쿄음악대학



도쿄음악대학



오산바시터미널




오산바시터미널

국내건축탐방 _ 추계

2024년 부산건축가회의 추계탐방지는 202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열리는 수원으로, 문화제 일정에 맞춰 기획하고,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1박 2일 일정으로 출발하였다. "2026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부산건축가회가 유치하게 되어 사전 답사 겸 추계 탐방지를 수원으로 정하고 문화제에 참석하고 일대를 탐방하게 되었다.

2024. 11. 29.일 출발하기 이틀 전 11월 27일 수원에 첫눈이 내렸는데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탐방이 가능할지 조바심 반 설레임 반으로 무작정 수원으로 출발하였고, 다행히 사고 없이 탐방을 마무리 하였으며, 올해 추계탐방은 건축물의 탐방보다 경상도 사람들의 100년만의 첫눈을 맞으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하는 탐방이 되었다.

 **일 정** : 2024년 11월 29일(금) ~ 30일(토)

 **참여인원** : 20명

 **장 소** : 수원, 용인 지역

• 백남준아트센터 (2008완공)

디자인 : 키르스텐 쉘멜, 마리아 스타코비치

설 계 : (주)창조건축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와 드로잉을 비롯해 관련 작가들의 작품 250여 점, 비디오 아카이브 자료 2,77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근대적 예술 관념에서 벗어나 미디어 시대의 정보와 소통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담론을 수용하는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 호암미술관 (1978완공)

설 계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조 경 : 정영선, 서안조경(1997)

리노베이션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 이건축연구소 스튜디오 라이터스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을 '하나의 미술관, 2개의 장소'로 운영하고자 삼성그룹의 지향점을 담은 것이다.



• 광교호수공원 (2013완공)

설 계 : (주)신화건설팅(국제공모)

2014년 대한민국경관대상

광교산과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아름다운 수변 공간인 어반레비와 함께 6개의 테마를 가진 동병으로 어우러져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를 담은 국내 최대의 도심속 호수공원



• 수원화성 : 정약용 (1794~1796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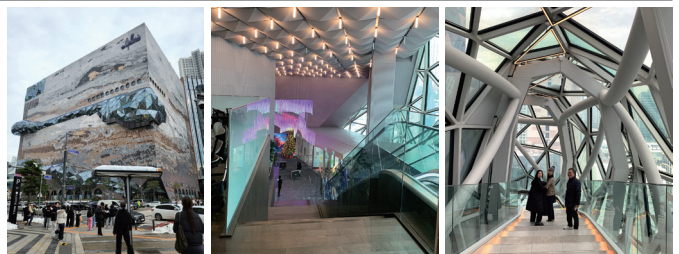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수원 화성은 한국전쟁 당시 일부가 파괴되어 이후 재건한 건축물로, 화성을 계획할 당시 그림과 글로 설계도와 관련 내용을 기록해둔 수원화성의 궤가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복원. 화성은 한국 성의 구성 요소인 웅성, 성문, 암문, 산대, 체성, 처성, 적대, 포대, 봉수대 등을 모두 갖추어 대한민국의 성곽 건축 기술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된다.



• 갤러리아 광교 (2020완공)

설 계 : OMA(렘콜하스), 간삼건축

전형적인 백화점이 방문객들의 인지를 흐리기 위해 창문을 없애는 구조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백화점은 갤러리아 광교의 콘셉트인 'Lights in your life(당신 삶의 빛)'를 완벽하게 형상화 하는 동시에 렘 콜하스의 건축 이론인 '리좀(Rhizome) 이론'을 바탕으로 해 만들어졌다.



2024년 신입회원 간담회

올해는 전년 대비 많은 건축가분들이 부산건축가회 회원으로 등록하였고 2회에 걸쳐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신입회원 간담회를 통해 부산건축가회의 조직과 활동, 가치를 소개하고, 신입회원의 협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젊은 건축가 각각의 건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부산건축가회의 발전과 우리 부산의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발현에 의의를 두고 있다.

상반기 🕒 일 시: 2024년 4월 11일
 👤 참여인원: 약 15명
 📍 장 소: 부산예술회관



하반기 🕒 일 시: 2024년 9월 6일
 👤 참여인원: 약 17명
 📍 장 소: 부산예술회관



2024년 신입회원과 임원 워크숍

🕒 일정: 2024년 11월 01일 ~ 11월 2일 👤 참여인원: 약 30명 📍 장소: 담다 펜션 (부산 해운대구 송정)

2024년을 사업과 행사들을 되돌아보고 마무리 하는 의미와 건축가회 임원진 및 젊은 건축가들의 단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임원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2024년을 사업과 행사들을 되돌아보고 마무리 하는 의미와 건축가회 임원진 및 젊은 건축가들의 단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임원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비와 추운 날씨로 준비된 야외 행사들이 취소됨에 따라 실내 행사를 하였으며 모르겠지 O,X 퀴즈, 윷놀이, 사진 콘테스트 등의 게임과 상품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와 웃음이 있는 하루를 회원들에게 선물 하였다. 특히 송정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토론회는 부산의 건축 현황과 이슈 그리고 우리 부산건축가회의 미래를 위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토론의 장은 본 임원 워크숍을 더욱 더 뜻깊게 하였다.

이번 임원 워크숍은 2025년 차기 회장님에게 우리들의 부산건축가회를 잘 부탁한다는 아름다운 마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워크숍으로 이봉두 회장님 필드로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2024 갈매랑 축제와 함께한 부산건축가회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

-  **주 제** : 예술을 위한 건축 시그널
-  **장 소** : 부산시민공원 다스관 동백꽃방
-  **행사 기간** : 2024년 5월 26일 ~ 6월 1일
-  **행사 내용**

건축 전시 - 젊은 건축가 작품 전시(10명) / 관람객 300명 이상
 부대 행사 - 어린이 대상, 3D입체종이퍼즐건축모형 만들기
 - 모형 제작 후 사진 촬영 / 참가 300명 이상



부산시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4 갈매랑 축제의 일환으로 부산건축가회는 '예술로의 여행展'을 부산시민공원 내 다스관 동백꽃방에서 열었다.



'예술을 위한 건축 시그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의 작품 전시와 축제를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건축의 예술을 체험하게하는 3D입체 종이 퍼즐건축모형 만들기로 행사를 구성했다.



건축가 작품 전시는 지역 곳곳에 있는 10인의 젊은 건축가들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오프닝에서는 전시에 참여한 젊은 건축가들의 발표와 더불어 선배 건축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평을 듣는 시간이 마련돼 서로의 작품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전시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건축의 예술성과 건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다.

2024 갈매랑 축제 마지막 날에는 부모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수의 건축을 모델로 한 건축모형 만들기를 진행했다. 날씨가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건축모형을 들고 가족과 함께 플라로이드 사진에 추억을 기록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예년과 또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젊은건축가위원회는 '예술을 위한 건축 시그널' 전시를 시작으로 부산건축가회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와 활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입회원 및 젊은건축가를 위한 멘토링 도입

젊은건축가들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시 됨에 따라 신입회원 및 젊은 건축가를 위해 멘토를 구성하여 생각과 말을 듣고 부산건축가회의 미래 가치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입회 2022년을 기준으로 22기, 23기, 24기수로 구분하고 각 기수별로 선배 건축가인 임원진 1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각 기수별, 수시로, 자율적인 멘토링을 운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젊은건축가와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면 그 시너지와 가치 창출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 부산건축가회 미래 가치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회원작품 탐방



회원작품탐방 현장 단체사진

올해 부산건축가회 회원작품연구위원회는 2023년 첫 시작에 이어 6차례 회원작품탐방을 진행하였다. 3월에 시작한 회원작품탐방은 전반기에 3회, 후반기에 3회에 걸쳐 탐방을 진행하였다.

2024년 부산건축가회 회원작품탐방은 부산건축가회 원로 건축가부터 젊은 건축가들까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 선정 및 탐방 기획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적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첫 탐방부터 마지막 탐방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회원작품탐방 운영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규모 측면에서 작품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부산건축가회 회원분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품탐방에 참여하고 싶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원로 건축가부터 예비 건축가(대학생, 대학원생)의 참여 및 열정적인 건축적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동명대 임성훈 교수님의 비평 세션을 함께 기획하여, 깊이 있는 건축적 소통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작품탐방은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원작품 선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과 같은 부산시 혹은 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수상과 별개로 본 회원작품탐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선정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건축적 소통의 장의 역할을 넘어, 다른 지역의 건축가, 예비 건축가(대학생, 대학원생 등) 및 일반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건축가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회원작품탐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탐방 횟수 설정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회원작품탐방을 위해 분기별 1회 정도로 탐방 횟수를 설정하여, 본 회원작품탐방에 선정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해를 맞이한 회원건축탐방이었지만, 위원장으로서 첫 기획이었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2024년 경험을 토대로 2025년 회원건축탐방 또한 치밀한 기획을 해야겠다고 느꼈고,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회원작품 탐방 일정 및 장소

2024년 3월 ~ 12월



 <p>2024 회원작품탐방 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2024 회원작품탐방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3월 27일 수영구 도서관</p>	<p>5월 3일 등덕꽃향</p>
 <p>2024 회원작품탐방 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2024 회원작품탐방 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6월 19일 조현화랑</p>	<p>9월 24일 영도 마당</p>
 <p>2024 회원작품탐방 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2024 회원작품탐방 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회원작품탐방 연구위원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주최: 부산건축가회
<p>10월 23일 애프터챗봇 호텔</p>	<p>12월 16일 코워킹스페이스</p>

2024 부산국제건축 디자인워크숍

부산국제건축제 디자인 워크숍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부산국제건축제, MVRDV,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이번 디자인 워크숍 주제는 'BUSAN NEXT-탄소중립 건축도시 부산'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적 비전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디자인워크숍 진행을 위해 이성호 집행위원장(부산국제건축제)과 위니마스 공동대표(MVRDV)가 사업책임을 맡았고, 워크숍 학교장은 성이용 교수(동아대)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영도에 위치한 스페이스 원지 봉래동 창고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부산시 명예 자문건축가로 위촉된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 마스(Winy Maas, MVRDV 대표)가 직접 기획하였다. 그의 리더십 아래, MVRDV 소속 건축가 및 직원 9명이 부산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직접 지도하며 깊이 있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 소재 9개 대학 건축학과와 협업하여, 학생 9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리서치와 부산 각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MVRDV의 리서치 분석법에 따라 부산지역의 다양한 도시 및 건축적 현안을 분석했다.



제18회 부산건축상

부산건축가회는 제18회 부산건축상 수상자로 “올해의 건축가상” 강기표 건축가(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공로상” 김종석 국장(전.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정달식 논설위원(부산일보), 김백수 본부장(KNN), “감사패” 허윤홍 대표이사(GS건설), 창원롯데캐슬 하버팰리스 현장소장 윤영진 (롯데건설), 양진일 대표(참콤), 한태곤 대표(선포탈)를 각각 선정했다. 매년 유망 신인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신인건축가상”은 올해는 해당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상한 강기표 건축가는 “건축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며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라고 하며 매 작업마다 건축가의 역할과 고민속에서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주요작품으로는 40계단 문화관, 금명여자고등학교, 향운병원, 수영로 교회 교육관, 김소춘갤러리, 화이제, 제빵소27도씨, 라인 25, 운덕재, 고위더스 사옥 등이 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김종석 국장(전.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산시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건축구역 시범공사사업 기획 등 부산시 건축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달식 논설위원(부산일보)은 부산의 도시문제를 다루면서 도시인과 도시의 상생관계등 도시문화 발전에 노력해 왔으며, 김백수 본부장(KNN)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속에서 건축문화 확장과 건축의 일상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허윤홍 대표이사(GS건설),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현장소장 윤영진 (롯데건설), 양진일 대표(참콤), 한태곤 대표(선포탈)는 부산건축가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에 많은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각 분야별로 건축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p>올해의건축가상</p>  <p>강기표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p>	<p>공로상</p>  <p>김종석 전)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p>
<p>공로상</p>  <p>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p>	<p>공로상</p>  <p>김백수 KNN 본부장</p>
<p>감사패</p>  <p>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p>	<p>감사패</p>  <p>윤영진 롯데건설 창원롯데캐슬 하버팰리스 현장소장</p>
<p>감사패</p>  <p>양진일 (주)참콤 대표이사</p>	<p>감사패</p>  <p>한태곤 (주)선포탈 대표이사</p>

인사말



부산건축가회 회장
이봉두



2024년 한해, 저희 부산건축가회는 열정적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회원의 작품을 직접보고 자랑도 하고 응원도 하였던 회원작품탐방, 일본신인건축가 초청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세미나, 그리고 부산의 건축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던 좌담회, 등등 행사마다 원로선배님을 비롯한 열정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좀 더 힘을 내었던 한 해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건축은 문화, 예술'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많이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창립한지 62년이 된 '부산건축가회'는 대한민국 전국 최고의 대학생 건축 대전인 '부산국제건축대전'을 비롯한 청소년건축상상마당 등등의 행사를 열정적으로 지속해 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건축의 가치를 알려왔고 최근에는 부산의 건축을 기록, 정체성을 살펴보고 더 가치있는 부산건축을 연구할 '부산건축도시관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건축계는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 속에 건축이 문화 그리고 예술로 사회적인 인식이 늘고 우리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60주년 원로 인터뷰 중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속 공부해라,'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서 했었다.'

지금도 충분히 열정적인 '부산건축가회'이지만 좀 더 함께, 그리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공부해 나간다면 '압도적으로 열정적인' 부산건축가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열정'은 스스로 더 자랑스럽게 되고 부산시민사회도 우리의 가치를 더 알고, 더 큰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열정의 건축가'들의 열정적인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해 '압도적 열정'을 기대해 봅니다.



부산건축가회 수석부회장
김두진



어느 해보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24 갑진년을 뒤안길로 보내고 푸른봄의 기운으로 지혜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202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더욱 더 가속화 되어가는 국내 건축경기의 불황속에서 건설, 건축시장이 매우 경직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야만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힘찬 파이팅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부산건축가회는 "열정의 건축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학생공모전의 산실인 부산국제건축대전, 부산예술총연합회의 청소년 예술제, 부산국제디자인워크숍을 주축으로 회원작품연구탐방을 통한 회원간의 작품비평과 공감대 형성, 춘·추계 건축 및 해외탐방 기행을 통한 회원간 소통과 교류. 특히나 신입회원과의 교류를 위한 기별 신입회원 간담회등으로 우리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산건축가회의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하여, 일상과 함께하는 건축으로 보다 친근한 건축문화로 부산도시와 부산시민에게 선한 작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견실한 건축단체로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푸른 기운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협찬사



협찬회원사

